월요논단

문화유산의 인식전환

김 태 일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최근 지역언론으로부터 한 통의 자문 요청 전화를 받았다. 내용의 요지는 화북 소재의 도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유지관리와 활용에 대한 것이었다. 덧붙여 관리주체인 행정과 소유주체인 소유주간의 의견충돌이 있다는 내용도 전해 들었다. 자문을 하며 여전히 문화유산에 대한 시대의 변화가 현장에서는 잘 반영되지 못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인식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화유산에 대한 시대의 변화는 가장 먼저 명칭과 법 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과거 문화재 지정에 대한 강한 반발이 적지 않았으나 최근 인식변화와 함께 문화재법이 국가유산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국제기준의 정합성과 시대변화와 미래가치를 담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국가유산법의 목적은 다음 3가지로,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해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과거 문화재법이나 정책은 정책과 책임규정, 그리고 문화향유는 있으나 보전에 따른 실질적인 활용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과정과 정책으로 원형보전주의에 기초한 국가유산, 특히 근대유산의 지정과 관리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유산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 보존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가치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유산법의 개정과 아울러 근현대문화유산법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법의 목적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두고 있는데 유산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부분을 원형보전하면서 활용을 통해 유산의 가치를 향유하게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틀에서 변화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인식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화북 소재 도지정 문화유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행정입장에서는 원형보존의 가치를 견지해야 하고 소유주 입장에서는 내구성 있는 유사한 지붕재료의 개선과 내부공간의 활용가치에 중심을 둘 수밖에 없어 서로 상충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문화유산위원회는 보존가치와 활용가치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다. 가능한 한 원형보존의 가치와 절차를 중시하는 행정의 입장과 재료의 개선과 공간활용의 가치를 찾으려는 소유주의 입장을 파악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보존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활용가치의 틀에서 재료의 선정이나 공간사용의 방식 등에 있어 협의와 조정의 과정을 좀 더 견지했으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문화재가 재화(財貨)적 관점에서 유산(遺産)적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지속성을 갖도록 문화유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

사설

'한국 관광의 별' 비양도 생태관광 모델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섬 속의 섬' 비양도가 올해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5년 한국 관광의 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15회째를 맞는 한국 관광의 별은 한 해 동안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과 관련 단체, 종사자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국민과 지자체, 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은 뒤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에는 관광지와 관광콘텐츠, 관광발전 기여자 등 3개 분야에서 10개의 별이 선정됐다. 비양도는 관광지 분야에서, (사)제주올레와 제주 배경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임상춘 작가는 관광발전 기여자 분야에서 선정됐다. 비양도는 기암절벽과 초지, 숲 원형이 보존된 수려한 자연경관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 주민과 관광객 모두 도보와 자전거 중심으로 이동하는 저탄소 구조, 친환경 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모델을 구현하고 있는 점도 선정 배경이 됐다.

비양도는 '날아온 섬'이라는 뜻으로 약 1000여 년 전에 거대한 화산 폭발로 생긴 섬이다. 제주도에서 마지막 화산활동으로 솟아난 한반도의 마지막 섬이다. 이 때문에 생태학적으로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다.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될 수 있는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이다. 비양도는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한국 관광의 별 명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양도 생태계를 잘 보존해야 한다. 또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

청신호 켜진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도입

렌터카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대여요금 할인율에 대한 상한제 도입이 가능해졌다. 해당 부처에서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최종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다.

관광 비수기 렌터카카 업계의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성수기와 비수기 간 대여요금 가격차가 심하다. 심할 때는 최대 10배까지 벌어진다. 렌터카 요금은 업체가 행정에 신고한 대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변경 신고를 통해 횟수에 관계없이 바꿀 수 있다. 예컨대 20만원에 신고했다면 성수기에는 20만원 그대로 받지만 비수기에는 최대 80~90%까지 할인한다. 때문에 관광객들은 성수기 요금을 바가지로 여겨 시비가 잦았다. 제주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렌터카 대여 약관을 통해 할인 범위를 제한하는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할인율 상한제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법제처 순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부처와 기관 간 유권해석 판단을 전가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결국 최종 공을 넘겨받은 국토부가 할인율 상한제 도입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법적 장애물이 해소됐다. 다만 할인 폭 제한 수준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도입이 가능해지면서 업계의 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장기간에 걸친 도의 끈질긴 대중앙 절충 끝에 얻어낸 결과여서 그 의미가 크다. 제주관광은 바가지 요금 때문에 홍역을 치렀다. 바가지 요금은 제주관광의 대외 이미지를 흐릴 뿐만 아니라 재방문에도 악영향을 준다.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도입이 바가지 요금 멍에를 벗겨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열린마당

양심과 함께 버려지는 쓰레기

김 태 유
서귀포시 안덕면장

앞서가던 자동차의 창 밖으로 무언가 휙 하고 날아간다. 손에 쥐고 있던 작고 하찮아 보이던 그것. 어쩌면 그 순간, 우리는 쓰레기만 버린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창문 밖으로 함께 내던져진 것은, 바로 우리의 양심 아닐까?

아주 잠깐의 편리함을 위해 길거리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나 작정하고 차량을 이용해 야산에 몰래 버려진 쓰레기들은 점점 썩어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비가 오면 하수구를 통해 하천과 바다로 흘러들어가 거대한 쓰레기 섬을 만들어 낸다.

물론 환경오염만이 문제가 아니다.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우리의 생활 공간을 황폐하게 만든다. 깨끗했던 거리는 눈살 찌푸려지는 장소로 변하고, 이는 곧 우리 공동체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

가장 아픈 부분은 바로 '양심'에 관한 이야기다. 단순히 환경을 더럽히는 것을 넘어 우리 안의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내버리는 것과 같다. '나 하나쯤이야'하는 작은 생각들이 모여 거대한 쓰레기 산을 이루고, '남들이 다 하는데 뭐'라는 무관심은 양심마저 침묵하게 만든다.

우리는 더 이상 양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작은 손에서 시작되는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2025 성탄트리 점등행사 개최

30일 양 행정시 동시 진행

○…성탄절을 한 달여 앞두고 30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과 서귀포시 1호광장에서 '2025 성탄트리 점등문화 행사'가 개최.

제주도는 성탄의 의미를 나누고 도민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두 지역 광장에 대형 성탄트리를 설치하고, 연말 연시 도민 누구나 성탄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트리는 12월 31일까지 매일 저녁 불을 밝힐 예정.

점등위원으로 참석한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임해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린다"며 "성탄트리의 따뜻한 빛이 도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에도 환하게 전해지기를 기원한다"고 강조. 오소범기자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위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2023년 12월 1일 화재진압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고(故) 임성철 소방공무원의 작고 2주기를 앞둬 지난 28일 제주국립호국원 방문과 함께 유가족을 찾아 위문.

도소방안전본부는 최근 20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을 직접 찾아 매년 위문을 이어오고 있으며, 순직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신 소방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이번 위문이 유가족 여러분께 작게나마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부 고

김동원(자영업) 어머니 **김해김씨 안자 (향년 85세)**께서 서기 2025년 11월 29일 22시 38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5년 12월 2일(화요일)**
▶발인일시 : **2025년 12월 3일(수요일)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 **성산읍 공설묘지**
▶장 지 : **양지공원 → 성산읍 공설묘지**

아 들 김동원 며느리 이영미
경원 김명희
딸 김경선 사 위 하명수
손 자 김광진
광수 손 부 좌노은
광후
민서 외 손 하기홍
손 녀 김민주 수연

※ 연락처 : 김동원 010-4005-3600
김경원 010-6877-3820
이영미 010-2693-4380
김명희 010-2391-3828
김경선 010-2638-0799
하명수 010-7749-0799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양씨 인실 (향년 94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어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12월 1일

아 들 송문희 며느리 고혜숙
문호 고해숙
딸 송옥선
신숙 사 위 김길남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5년 11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6년 01월 23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채권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12월 1일

주식회사 **웅진건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73, 5층(도남동)
청 산 인 **최 경 희**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82-3644
010-4690-3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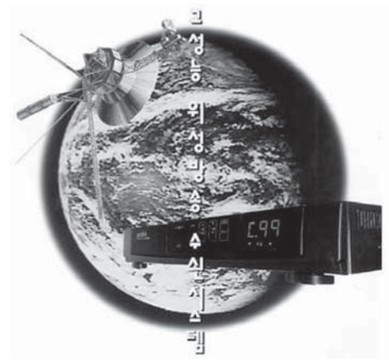
● 깨끗한 환경 건강한 생활 ●
제주, 입주청소
하수구뻥, 변기교체 제초작업/벌초대행
010-4025-6424
- 입주, 이사, 거주, 부분청소 -
아파트, 빌라, 연립, 펜션, 개인주택, 식당, 상가, 학원, 사무실, 공연장 등등
줄눈시공/방충망교체/생활폐기물처리
싱크대수전교체/곰팡이제거
주거환경을 깨끗하고 산뜻하게 입주 첫 날의 그 깨끗함, 그대로를 재현합니다.
제주크린 등록번호:616-16-81361
세금계산서 발행, 카드결제 가능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